

코로나에 날개 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 너도나도 차세대 먹거리 ‘찜’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과 보건 의료분야에 IT가 접목돼 활용 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한다. 주된 활용 기술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모바일 앱, 무선통신,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등이다.



개인별 특성에 맞춰 의료적 상황을 예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오면서 활용 기술을 보유한 유통사, 통신사, 제약사, IT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통 기업 롯데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로 낙점,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롯데의 자회사 롯데헬스케어가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가 700억원을 출자해 지난 4월 설립했다.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나 유전자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섭취방식, 맞춤형 식단, 운동 등 건강관리를 위한 코칭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이러한 건강관리 플랫폼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이후엔 메디컬 영역까지 넓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초 신년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통신사 KT는 비통신 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꾀하며 울초부터 발 빠르게 나섰다.

KT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손잡고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 특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을 이루고 있다. KT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연구 인력과 임상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

양측은 디지털치료기기 시제품 개발까지 마치고 중독개선,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디지털치

료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향후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바이오헬스P-TF’를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으로 격상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육성 의지를 다졌었다.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대웅제약이 미국 AI 신약 플랫폼 기업 크리스탈파이와 손잡고 항암 신약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에이치디정선의 클라우드 기반 EMR(전자 의무기록)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 유한양행은 심전도 모니터링 인공지능 솔루션인 ‘메모패치’ 개발 기업 휴노에 투자하며 AI 진단 시장에 진출했다.

한독은 알코올 중독과 불면증을 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웰트에 30억원을 지분 투자했다. 웰트는 2016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스타트업이며, 글로벌 디지털치료제 산업협회(DTA)에 아시아 최초 멤버로 가입한 회사다. 동아쏘시오는 메디컬아이피에 50억원, 웨어러블 심전도기 개발사 매주에 25억원 등을 투자했다.

그리고 GC녹십자는 2020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유비케어를 인수한 이후 환자 EMR 데이터 축적 및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2018년부터 뇌전증 발작 감지·예측 알고리즘, 디바이스 연구 개발을 해오던 SK바이오팜은 최근에는 SK와 공동으로 미국 기업 칼라헬스에 투자를 결정했다. 칼라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지털치료제 내 생체전자 의약품 분야 선도기업으로, 손목시계 형태로 말초신경을 자극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전자약을 개발해 2019년 FDA 허가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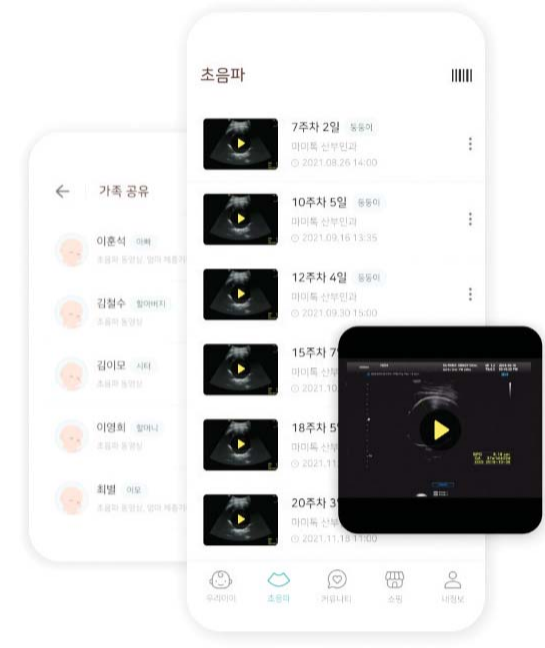
이밖에 작년에 카카오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가 생애주기별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에 힘을 신는다.

주요 서비스인 ‘레어노트’와 ‘마미톡’ (앱)을 양대 축으로 고령화된 인구에 맞춰 노년기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진출, 생애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임신부터 육아까지는 마미톡, 희귀난치성질환을 책임지는 레어노트 서비스에 이어 조만간 노년기에 특화된 건강관리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배변습관, 수면기록 등 영아 돌봄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마미톡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발달주기별 교육 콘텐츠를 신설해 구독형 서비스를 선보인다. 레어노트는 희귀질환 분야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며 사용자 기반을 구축한 뒤 수집한 데이터를 매개로 환자와 의료를 연결, 맞춤형 예후관리를 실현한다.

휴먼스케이프가 구상하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키워드는 근감소증으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노년기 질병 대부분이 근감소증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준비할 방침이다.



마미톡 앱 내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화면 이미지. /휴먼스케이프

‘디지털헬스위’ 설치안 의결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수행

>> 1면 ‘차세대 국가 유망산업’서 계속

정보 수집·이해 제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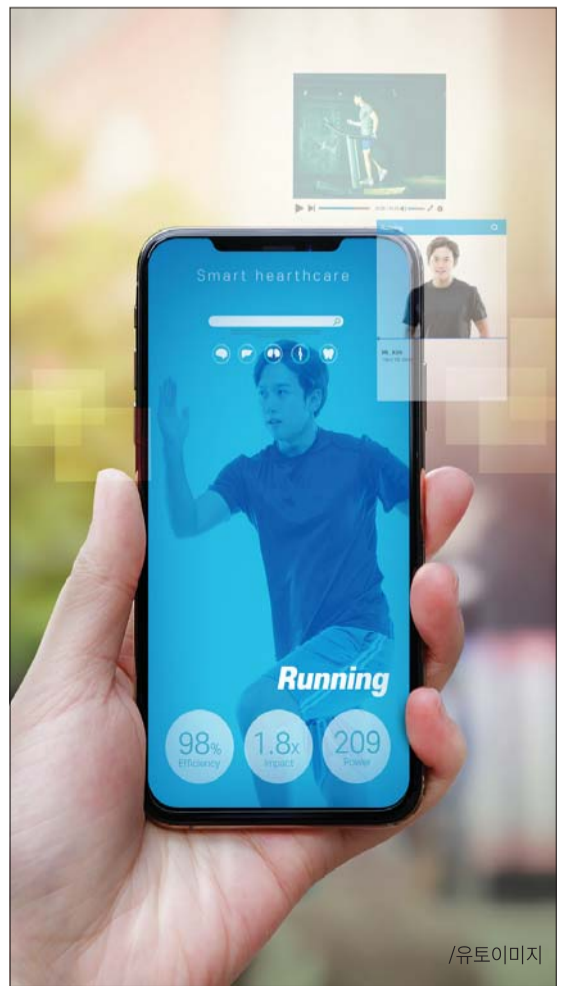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는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망 산업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 한축으로 인식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기기, AI 진단 보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계획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료의 재정 절감 효과, 일상 속 관리 및 재진 수요가 높은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 등 국내 의료 실정에 맞춰 정부의 지원 및 관련 사업 도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5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디지털헬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디지털헬스위원회는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정보 수집 및 이해 제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유관 단체와의 업무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대기업과 제약사, IT 헬스케어 기업들은 건강 관리와 고령화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개인 맞춤, 생애 주기 및 상황별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기존 바이오 사업과 기업들의 이전 사업, 헬스케어 사업 간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유토이미지